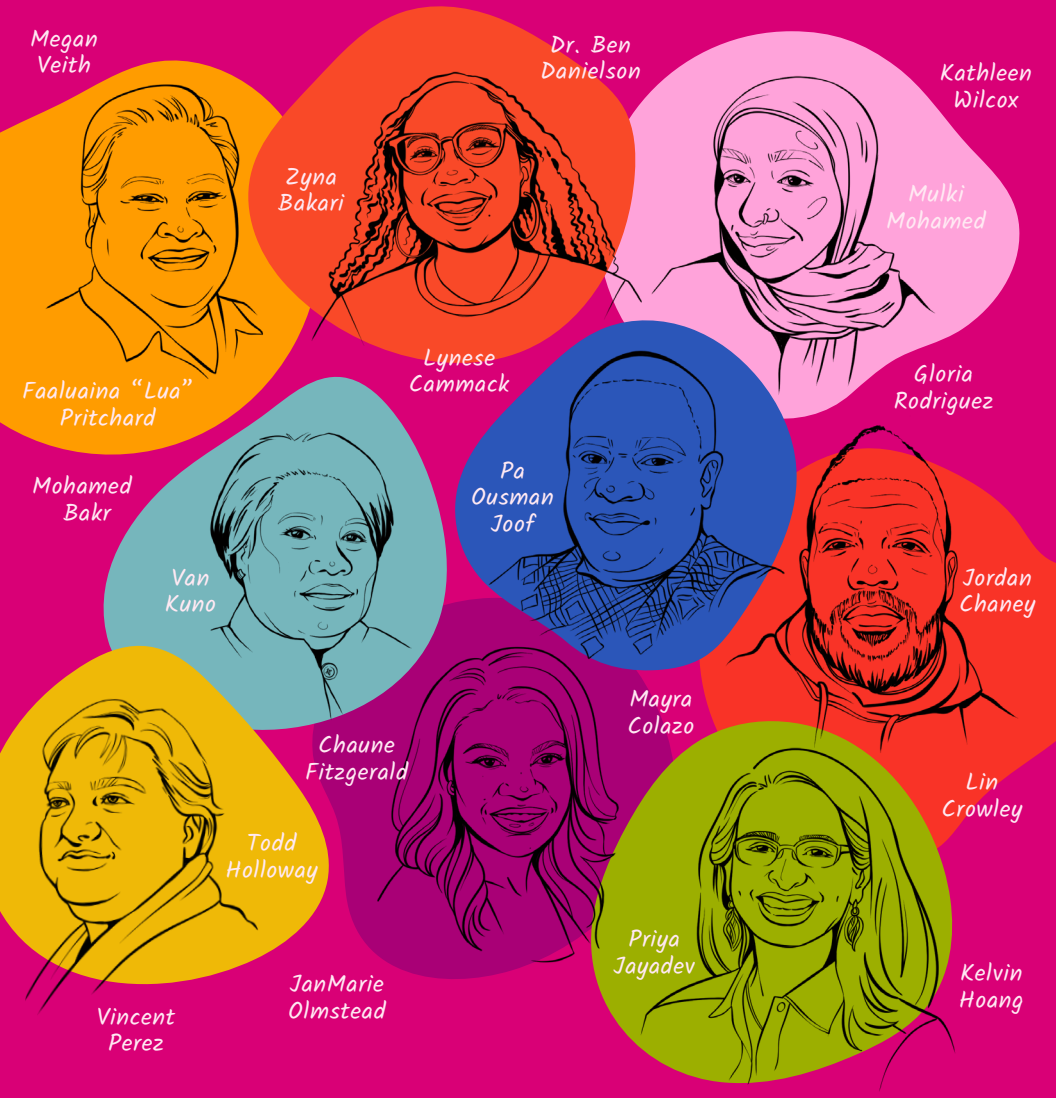
최전선 실무자들의
이야기:

COVID 종식을 앞두고



지역사회 협업적 사고 파트너 원본 글

최전선 실무자들의 이야기:

COVID 종식을 맞이하며

글 모음집 공동편집자
Anastacia-Reneé, C. Davida Ingram
& Fathiya Abdi

지역사회 협업적 사고 파트너 원본 글

목차

vii 서문
ix 독자에게 전하는 말
1 스스로 주지해야 할 3가지 JORDAN CHANEY

글쓰기 프롬프트 #1 *팬데믹을 기억하며*

4 바로 뛰어들다 VAN KUNO
6 그라운드 제로 LIN CROWLEY
8 COVID KELVIN HOANG
9 불안했던 취업 전선 GLORIA RODRIGUEZ
10 스트레스, 혼돈, 그리고 피로 MAYRA COLAZO
11 기억, 관계 그리고 두려움의 순간들 MEGAN VEITH
12 지난 날을 돌아보며 TODD HOLLOWAY
14 감정 PRIYA JAYADEV
16 관계의 미학 ZYNA BAKARI

글쓰기 프롬프트 #2 *COVID를 경험하며*

20 LIN CROWLEY
21 LEENA VO
22 이 상황으로 인해 바뀐 것들 PRIYA JAYADEV
23 존중을 당부하는 시 FAALUAINA "LUA" PRITCHARD
24 미생물부터 지구에 이르기까지 TODD HOLLOWAY
25 가장 암울했던 팬데믹의 한 가운데에서 경험한 아름다움 ZYNA BAKARI

글쓰기 프롬프트 #3 *COVID로 인해 직면했던 문제들*

28 COVID에 대한 짧막한 시 LEENA VO
29 LIN CROWLEY
30 회고 PA OUSMAN JOOF
32 MULKI MOHAMED
33 FAALUAINA "LUA" PRITCHARD
34 PRIYA JAYADEV
35 TODD HOLLOWAY

글쓰기 프롬프트 #4 *COVID로부터 얻은 것*

38 COVID로부터 얻은 것에 대한 예찬 JORDAN CHANEY
39 LIN CROWLEY
40 COVID와의 이별 선물 LEENA VO
41 MULKI MOHAMED
42 ZYNA BAKARI

글쓰기 프롬프트 #5 *COVID 관련 창작 스토리 및 부고*

46 JORDAN CHANEY
47 PRIYA JAYADEV
48 치유자의 메모: 슬픔을 치유하는 허브

글쓰기 프롬프트 #6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기쁨과 슬픔에 대한 명상*

52 MAYRA COLAZO
53 ZYNA BAKARI

글쓰기 프롬프트 #7 *관계를 유지하기*

56 감사말 FATHIYA ABDI
57 협업적 사고 파트너

서문

이 소책자는 워싱턴주 지역사회 기반 응급 구조원들을
기리기 위해 두 개 부문으로 구성된 작업의 일환입니다.

다음으로는 타임캡슐 관련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관 및 정책입안자와 공유할
별도의 지식 목록도 함께 제공됩니다.

워싱턴주 전역의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해 주신
각 협업적 사고 파트너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멤버 이름이 포함된 전체 리소스 목록은 마지막 부분에 제공됩니다.

독자에게 전하는 말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최전선에서 여러분을 위해 애쓰는 분들의 속마음과 글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여기에 적어 공유해 주십시오.

스스로 주지해야 할 3가지

이제는 무언가 보내줘야 할 때
제 영혼 속 환영 매트의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새롭게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Jordan Chaney
문화 노동자, 시인

글쓰기 프롬프트 #1
팬데믹을 기억하며

독자에게 전하는 말

COVID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경험한 일들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3~5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바랬던 점과 두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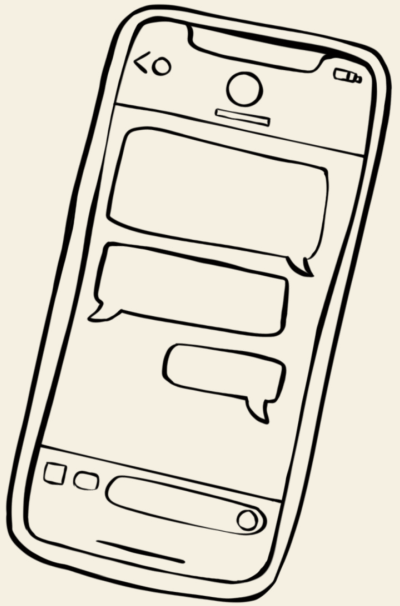
바로 뛰어들다

저는 COVID가 빨리 사라지길 바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무서워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뛰어들었습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여동생과 연락을 취하면서
임대료 지불을 위한 자원을 찾을 수 있었고
고객을 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은 제 차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Van Kuno
Refugee & Immigrant Services NW



그라운드 제로

한치 앞도 모르는 앞날

저는 2020년 봄 기존 일정대로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교사들은 '더 이상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며 학생들 역시 등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시가 떨어졌고 '학교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이후 찾아온 혼돈

시애틀에서는 최초 확진 사례를 그라운드 제로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익히라는 요청을 받았고 모두가 교실에서가 아니라 줌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과 직접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대면 없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해냈습니다.

역경을 통한 성장

당시 저는 우리 비영리 단체가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활동과 행동주의를 통해 옹호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합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더불어 지역사회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각자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몇몇 사람들. 모두가 서로는 물론, 지역사회 또한 지원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결코 희망을 잃지 않다

저는 우리가 이미 이룩한 것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서로 함께 구축해온 커다란 관계 또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이 사그들까봐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각자의 기본적인 요구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서로 협력을 통해 더욱 강인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맙니다.

Lin Crowley
Asian Pacific Islanders Coalition SPS
Multicultural Center of the South Sound

COVID

'이루어질 일은 언제든 이루어진다.'
무엇이든

그 어떤 것이든
모든 일이

Kelvin Hoang
Asia Pacific Cultural Center

불안했던 취업 전선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MPA, 행정학 석사) 과정을 마친 직후
8월 말에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COVID가 발발하기 전이었던 2019년 10월
어머니와 함께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다보니 취업을 하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2019년 12월 마침내 Pierce County Department of Emergency Management(피어스 카운티 비상사태 관리국)에서 자원봉사자 면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발발하기 4주 전이었죠

그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Gloria Rodriguez
LatinX Unidos of the South Sound

스트레스, 혼돈, 그리고 피로

전무이사직을 맡게 되어 신입 직원을 고용하고 새로운 직무를 익히던 중 COVID 팬데믹이 발발했습니다. 아플까봐 두려웠죠. 그러나 제 아이들이 제게 힘이 되어 주었고 저 역시 아이들에게 힘이되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이 내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딸이 다니는 학교는? 고려해야 할 게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백신 접종을 (완전하게) 받을 수 없는 면역저하자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저 COVID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바랬던 기억이 납니다. 단 몇 개월이면 모두가 정상화되기를 바랬습니다. COVID는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정책도 바뀌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모이는 방식도 바뀌고 근무 방식은 물론, 작업 공간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마스크도 착용해야 했고 한 번에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하고 기침하는 직원과 고객들에게 적절히 대응하고 직원들이 재택 근무를 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가끔은 의심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기도 했고 실패할까봐 정말 두려웠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문했죠.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이 상황으로 인해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고립되지 않도록 COVID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요.

Mayra Colazo
Central WA Disability Resources

기억, 관계 그리고 두려움의 순간들

- 할머니가 임종하시는 순간에 함께 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통화 밖에 할 수 없었던 기억
-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와 유리창을 통해서만 대화를 나눠야 했던 기억
- 대규모 공동묘지를 짓는 상황을 전하는 뉴욕 병원의 뉴스 보도
- 생명 유지 장치를 한 사람들로 가득 찬 병원을 보여주는 이탈리아의 뉴스 보도
-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스카이프 화상 채팅
- 워싱턴주에 사는 여동생을 비롯한 가족과 연락했던 기억
- 가족 스카이프 통화를 시작했던 기억
- 언제 다시 부모님을 뵐 수 있을지 알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
-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Megan Veith
Building Changes

지난 날을 돌아보며

저의 불안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당시 상황과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저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변합니다. 주로 장애인과 면역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저는 오로지 그들을 보호할 수 있기만을 절박하게 바랬습니다. 백신이 제공되었지만,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Crisis Standards of Care(CSC, 위기관리표준), 즉, 의료 배급, 접근, 신체적 접촉, 검사, 검역, 백신 등, 병원 수용 인원 및 모임 인원 설정의 위험, 바이러스 변종과 변이, 잘못된 믿음에 의한 인종 차별, 백신의 가용성, 검사 감시 문제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데믹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랬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암 세포와도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치뤄진 선거는 더욱 더 혼란을 유발하는 깊은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저는 Partnership for Inclusive Disaster Strategies(PIDS)와의 국가 파트너십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위급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공중 보건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비하고 대응하고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점에 대해 알려준 곳이죠. 우리는 2020년 2월 28일부터 매일 회의를 했습니다. 그 동료들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신의 은총이었습니다!

Todd Holloway
Center for Independence

감정

I. 두려움

자신의 COVID 확진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의 COVID 확진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위험군의 COVID 확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조직 폐쇄에 대한 두려움
프로그램 진행 중단에 대한 두려움
재정 흐름이 막힐 것에 대한 두려움

고립에 대한 두려움
원격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 및/또는 연결성을 갖추지 못한 지역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II. 불확실성

미디어의 모순된 정보와 관련된 불확실성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사실 일부 인구 집단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합니다"
"마스크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III. 불신

엄청난 선진국인 미국이 팬데믹에 의해 그렇게나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불신
전 세계적인 위기라는 데 대한 불신

IV. 겸허함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진화 피라미드의 최고위층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세포 바이러스가 얼마나 쉽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한 번 보십시오.

V. 지원

저는 가족과 연락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격리를 실천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을 배우면서 전화와 화상 채팅을 통해 연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제 직장에서는 활동/정보의 자택 전달, 가상 프로그램, 전화 통화, 채팅 메시지, 페이스북 등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고객과 계속해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을 구축했습니다.
계속 연락을 취하기 위해 새로운 플랫폼과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모든 접근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연성도 유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VI. 희망

일반 대중들이 결국에는 이번 팬데믹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고충을 겪었는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COVID가 장애인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애인 커뮤니티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지원과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Priya Jayadev
Clallam Mosaic: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Services

관계의 미학

저는 자연과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꽃을 감지하는 앱이 있습니다. 몇 시간이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꽃 사진을 찍고 각 꽃의 이름도 알아봤습니다. 특히 2020년 여름 George Floyd, Breonna Taylor 및 많은 사람들의 살인 사건 이후 그랬죠.

저는 가족과 어린시절 친구들과 연락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줌 해피아워, 줌 커피 타임을 가졌죠. 테라스에서 햇빛을 받으며 홈메이드 페이퍼와 반짝이, 꽃잎으로 둘러싸여 앉아 줌을 통한 예술창작 시간도 가졌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함께였고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보고 듣고 서로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처음으로 원격 근무를 하면서 동료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팬데믹 직전에 승진을 해서 원거리에서 새로운 직무를 익혀야 하는 실정인지라 모든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했기에 서로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꽃은 제게 치료제와도 같았습니다. 기울어진 태양도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였죠.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두렵고 슬프고 무언가 상당히 잘못된 듯한 상황에 의지가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Zyna Bakari
Urban League of Metropolitan Seattle

글쓰기 프롬프트 #2
COVID를 경험하며

독자에게 전하는 말

COVID를 통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무엇에 감사하나요?
COVID의 혼돈 속에서
무엇에 행복을 느끼셨나요?

COVID는 인간 대 인간 접촉을 통해 확산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일깨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 미지의 무언가가 두려울 때조차도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미지의 무언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Lin Crowley
Asian Pacific Islanders Coalition SPS
Multicultural Center of the South Sound

> 저는 페이스타임과 스카이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락하는 방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대처 기술 또한 익혀야 했습니다. 화초를 기르는 새로운 취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을 찾는 데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COVID로 인해 궁극적으로 삶은 대단히 바뀌었습니다(체중 증가를 포함해서).

Leena Vo
Asia Pacific Cultural Center

이 상황으로 인해 바뀐 것들

1. *이 상황으로 인해 바뀐 것들* 팬데믹 극복을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할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 *이 상황으로 인해 바뀐 것들* 자녀가 컴퓨터나 휴대폰 화면을 보는 시간을 상당 부분 허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오락' 목적으로 하루에 1~2시간 정도만 이용하도록 했는데 말이죠. 팬데믹 동안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 *이 상황으로 인해 바뀐 것들*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 베이비 샤워, 결혼식, 콘서트, 축제 등 '일반적인' 모임을 통한 즐거움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이 상황으로 인해 바뀐 것들* 자기 관리에 집중해야 할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 개선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스스로 행복감을 유지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요가를, 오후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특정 시점에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뿐만 아니라 게임, 하이킹, 영화 감상 등 자녀와 좋은 시간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Priya Jayadev
Clallam Mosaic: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Services

존중을 당부하는 시

서로 더욱 존중합시다.
심지어 내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사람도

//정치적이고 완고하고 바보 같더라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와 다를 뿐

Faaluaina "Lua" Pritchard
Asia Pacific Cultural Center

미생물부터 지구에 이르기까지

삶이 훨씬 더 소중해졌습니다. 모든 수준에서. 미생물부터 지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COVID는 우리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생존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와 다른 변수들로 인해 다른 생명체들이 재앙을 겪는 것이 마땅한가요?

Todd Holloway
Center for Independence

가장 암울했던 팬데믹의 한 가운데에서 경험한 아름다움

저는 스스로 즐거움을 얻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밖에서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을 때 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마음 속 창가에서 피어난 꽃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제 일정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원하는 대로 하루를 계획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반려동물과 함께 집에 머무르는 경험을 한껏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고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계획이 없다는 것이 매우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즐겁다면 그것을 저항의 행위로 여겨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한 번에 많은 감정과 진실을 품고자 노력했습니다.

Zyna Bakari
Urban League of Metropolitan Seattle

글쓰기 프롬프트 #3
COVID로 인해 직면했던 문제들

독자에게 전하는 말

지난 날을 돌아보며 팬데믹 동안 직면했던 문제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나요?

그 특별한 시점에 인생에 대해 어떻게 느꼈나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 가족은 COVID로 인해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지역사회 모임도 중단되었고 온라인이나 페이스타임을 통해 연락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팬데믹은 제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 건강적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또한 많은 친구들이 COVID-19 확진을 받고 신체적인 건강이 악화되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저 팬데믹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부차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었죠.

COVID에 대한 짧막한 시

삶은 저의 관점을
바꿔놓았습니다
즉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게중에는 예고조차 없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Leena Vo
Asia Pacific Cultural Center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Lin Crowley
Asian Pacific Islanders Coalition SPS
Multicultural Center of the South Sound

Department of Health(DOH, 보건부) 및 All in Washington과 같은 조직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25분, 30분, 40분 거리의 Monroe State Fairground, Arlington Airport로 데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직장에서 두세 시간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와 손실된 시간을 충당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급여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우선 $50짜리 상품권을 배부하고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모두가 각자의 [교통수단과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COVID가 발발하고 나서야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 즉,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비롯해서 모든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안타깝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밖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사람들이 CrossFit 상자를 받으러 올 때 제가 "S'alam"이라고 말하는 걸 들으셨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서비스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75,000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제 자신은 물론 모든 동료들도 말이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지금이야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만, 앞으로 이 작업을 어떻게 지탱해나갈 수 있을까? COVID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사무실 문을 닫고 거실이나 주차장 등에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때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그간의 꿈이 산산조각이 난다면 정말 실망스러울텐데.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절망적일텐데.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211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는 이곳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 건강 옹호자로서] 모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물론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COVID]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COVID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종식이 될 것인지 전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Pa Ousman Joof
WA West African Center

우리 가족은 COVID 팬데믹에 대해 조심스러우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우리 가족 6명 중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남자 형제들은 지금까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Mulki Mohamed
RuntaNews

의학적 및 정치적 불신과 COVID의 위험에 대해 노골적인 고집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속이는 사람, 정치인, 남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는 사람,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죠.

Faaluaina “Lua” Pritchard
Asia Pacific Cultural Center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Priya Jayadev
Clallam Mosaic: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Services

격리 기간 동안 최대한 격리를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공중보건국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검사, 격리, 백신 접종 등을 위한 장소 평가와 관련하여 비상사태 관리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오염 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가족과 절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컨디션이 어떤지,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지인이나 매일 올라오는 뉴스피드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메시지가 달라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Todd Holloway
Center for Independence

글쓰기 프롬프트 #4
COVID로부터 얻은 것

독자에게 전하는 말

잠시 힘들었던 팬데믹 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공유해 주십시오.

COVID로부터 얻은 것에 대한 예찬

사람들은 각자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전례 없던 시대에 한동안 사람들은
집단 의식과 도덕성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모두 마스크를 벗어던졌습니다.

그간 걸려있던 주문이 깨졌습니다.

회고록을 작성했고 아이들을 격리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 예술 학교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팬데믹은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메시지에 대한
낙담과 무관심으로 점철된 세상에 내려진
일종의 백신이었습니다.

꿈은 다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COVID는 사람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똘똘 뭉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스는 더욱 달콤하게, 기나긴 이별은 더욱 길게 만들었으며
해는 더욱 뜨겁게 달구고 늦게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연의 모든 신성함을
온 세상에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엄청난 고뇌와 기쁨을 선사하고서
다시 땅으로 꺼졌습니다.

재에서 재로, 먼지에서 먼지로.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Jordan Chaney
문화 노동자, 시인

COVID로 인해 얻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서로를, 심지어 모르는 사람조차도 도울 수 있음을
알게된 것입니다. 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넘치는
지역사회에 몸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려 합니다.
COVID 동안 탄탄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Lin Crowley
Asian Pacific Islanders Coalition SPS
Multicultural Center of the South Sound

COVID와의 이별 선물

건강한 습관이 주는 이별의 선물
저는 이제 매일 산책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매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합니다

Leena Vo
Asia Pacific Cultural Center

컨퍼런스 및 취업박람회와 같은 이벤트가 온라인 형식으로 바뀌게 된 것은 락다운 기간 동안 해당 상황에 대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Mulki Mohamed
RuntaNews

저는 다시금 독서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책들을 다시 읽으며, 다른 세계로 저를 인도하는 소설 속에 빠져들고, 시를 탐독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매우 좋아했던 일을 하면서 제 자신과 더욱 친근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게다가 5년이 넘도록 손대지 않았던 글쓰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타자기를 마련해서 저녁이면 뒷베란다에서 달빛을 맞으며 발치에 누워있는 강아지를 동무 삼아 글을 썼습니다. 저는 팬데믹 동안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도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경험했습니다.

Zyna Bakari
Urban League of Metropolitan Seattle

글쓰기 프롬프트 #5
COVID 관련 창작 스토리 및 부고

독자에게 전하는 말

나만의 COVID 관련 창작 스토리, 신화, 우화를 작성해 본다면 어떨까요?

나만의 COVID 부고를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실 건가요?

COVID는 이미 불확실하고 분열되어 있는 시기에 가학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COVID는 고양이보다 더욱 오래 사는 고아 녀석입니다.

COVID가 사랑하는 이들을 잠식하면서 더 오래 살 수 있다(변종)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잘못된 정보에 의한 희생자들을 주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Jordan Chaney
문화 노동자, 시인

COVID는 수년 전에 태어 났으며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그라들었으나 그 형제자매가 엄청난 관심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COVID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무대에서 슈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가 스스로 밟고 있는 땅을 점점 더 잠식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COVID는 우리에게 이 지구 상에는 인간이 '전부'가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Priya Jayadev
Clallam Mosaic: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Services

치유자의 메모: 슬픔을 치유하는 허브
우리 기분을 좌우하는 사람과 같은 식물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허브차 목록입니다. 안정을 취하기 위해 어떤 민간 요법을 이용하시나요?

식물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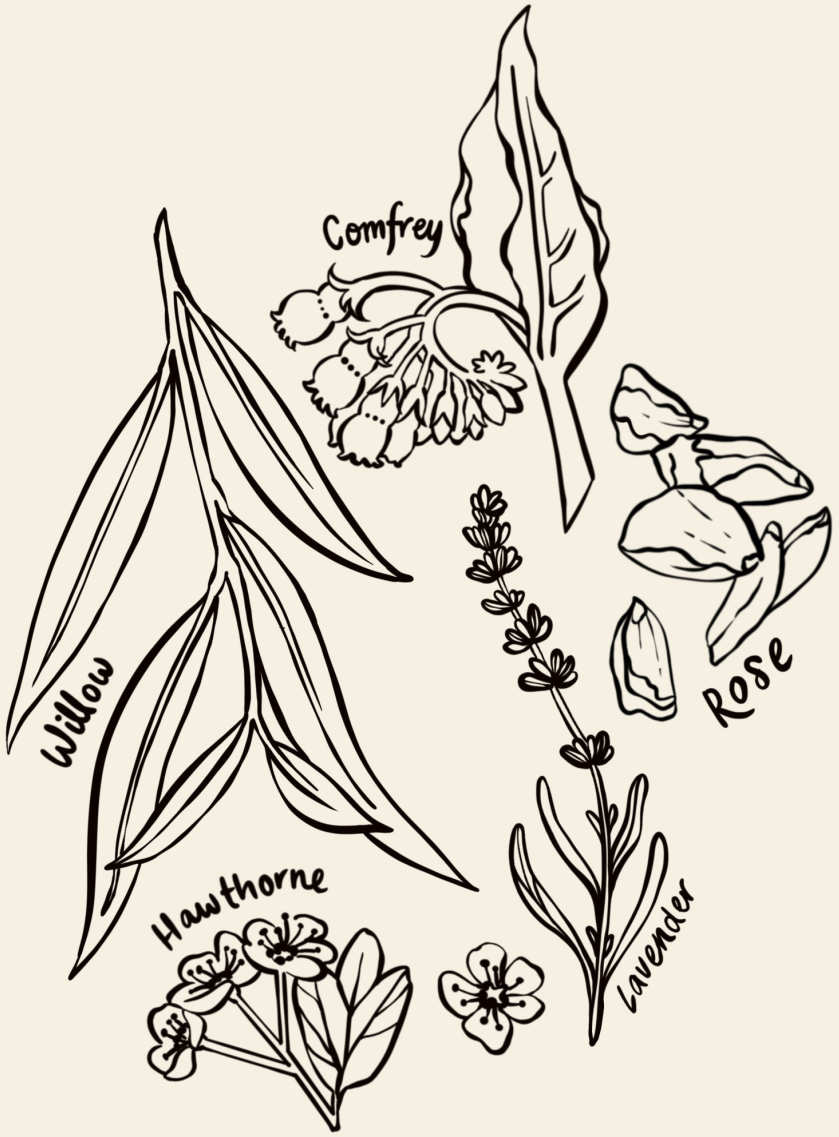
버드나무

컴프리

장미

산사나무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식물: 라벤더, 황금, 민트, 레몬



글쓰기 프롬프트 #6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기쁨과 슬픔에 대한 명상

독자에게 전하는 말

자신의 몸에게 어디에서 슬픔과 기쁨을 느끼는지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떠오르시나요?

슬픔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가슴 속 깊이 슬픔을 느낍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얼굴 가득 기쁨을
느낍니다 미소를 짓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머리로도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살면서 기뻤던
순간을 떠올리기 때문이죠

Mayra Colazo
Central WA Disability Resources

어떤 기쁨이든, 느껴진다면

한껏 누리세요.

달이 훤히 떠 있는 하늘을 향해 높이
뛰어오르거나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들판을 굴러도
보세요.

어떤 기쁨이든, 느껴진다면

마치 바다의 항해사처럼 눈부시게 벅차는

마음으로 기쁨을 만끽하세요.

기쁨을 한껏 누리세요

필요한 순간에

그 기쁨의 순간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게

Zyna Bakari
Urban League of Metropolitan Seattle

글쓰기 프롬프트 #7
관계를 유지하기

독자에게 전하는 말

자신만의 느낌과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제공되는 최전선의 실무자들로부터 수집한 글을 모두 읽어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 속에 담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든, 때로는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순간의 의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다음 세대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창작한 글이나 희망, 두려움, 꿈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면, 저희가 경청하겠습니다.

감사말

우리가 나눈 아름다운 대화들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최전선 실무자들의 멋진 글들을 즐겁게 읽으셨기를 바랍니다.

형평성 지도자들이 이번 협업에 대해 구상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COVID 백신 접종 계획 및 대응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미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협업의 기회를 육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주 전역의 680여 파트너들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졌고 24개월 동안 모임을 가진 끝에 드디어 지역사회의 비전을 담은 정책과 접근 방법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성된 공간은 그 효과가 강력했고 파생 작업 그룹을 두 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저마다 빛나는 창의력을 공유해 주신 19명의 Collaborative Thought Partners를 공동 지휘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아래 명시한 파트너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을 통해 지역사회 케어를 집중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결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며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리더들의 비전을 통해 협회로서 우리가 문화, 언어, 정보 확산 방식을 존중하면서 모두에게 효과적인 공중 보건 시스템을 재구상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Fathiya Abdi
지역사회 협업 담당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HEALTH

이 문서 작업을 위한 자금은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Health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이 간행물과 기고글에 표현된 의견은 반드시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Health 또는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보건복지부)의 공식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상호, 상업 관행 또는 조직에 대한 언급이 미 정부의 지지를 받았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Chaune Fitzgerald, Women of Wisdom – TriCities

Ben Danielson 박사, 지역사회 옹호자

Gloria Rodriguez, LatinX Unidos of the South Sound

JanMarie Olmstead, American Indian Health Commission

Jordan Chaney, 문화 노동자, 시인

Kathleen Wilcox, African Americans Reach & Teach Health

Lin Crowley, Asian Pacific Islanders Coalition SPS 및 Multicultural Center of the South Sound

Faaluaina "Lua" Pritchard, Asia Pacific Cultural Center

Lynese Cammack, 청소년 지역사회 옹호자

Mayra Colazo, Central WA Disability Resources

Megan Veith, Building Changes

Mohamed Bakr, Muslim Community Network Association

Mulki Mohamed, RuntaNews

Pa Ousman Joof, WA West African Center

Priya Jayadev, Clallam Mosaic: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Services

Todd Holloway, Center for Independence

Van Kuno, Refugee & Immigrant Services NW

Vincent Perez, Equity Institute

Zyna Bakari, Urban League of Metropolitan Seattle

Kim Crutcher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DOH 830-032 May 2024 Korean
본 문서를 다른 형식으로 요청하려면 1-800-525-0127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가 있는 고객은 전화 711(Washington Relay) 또는 이메일 doh.information@doh.wa.gov로 연락하시면 됩니다.